<h1>나 혼자만 레벨업-60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y9164061307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0화</p>  
<p>레드 게이트 앞.</p>  
<p>백윤호의 표정은 어두웠다.</p>  
<p>안상민이 성진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줬지만 불안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.</p>  
<p>"결국 추측뿐이지 않습니까?"</p>  
<p>"그렇긴 합니다."</p>  
<p>안상민은 순순히 인정했다.</p>  
<p>아직 성진우에 대해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이니까.</p>  
<p>'사장님도 성진우 헌터를 직접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텐데.'</p>  
<p>성진우는 분명 뭔가가 달랐다.</p>  
<p>그 점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상민 본인도 답답했다.</p>  
<p>백윤호의 시선이 슬쩍 게이트 쪽으로 향했다.</p>  
<p>"그럼 역시 믿을 사람은 김철뿐...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"김철은 문제없을 겁니다."</p>  
<p>백윤호, 안상민, 현기철이 있는 자리에 한 사람이 더 끼어들었다.</p>  
<p>세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.</p>  
<p>제1관리과 과장 주성찬.</p>  
<p>그는 세 사람을 둘러보더니 자신만만하게 말했다.</p>  
<p>"어떤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김철 헌터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켜 놨습니다."</p>  
<p>원래 신입 헌터들의 교육은 제2관리과가 전담하지만, A급 이상의 각성자는 제1관리과가 직접 교육을 맡았다.</p>  
<p>정예 공격대에 들어가는 인재는 출발점부터 다른 것이다.</p>  
<p>주성찬의 강한 자신감에 백윤호의 표정이 약간 풀어졌다.</p>  
<p>"김철 헌터의 성적은 어땠습니까?"</p>  
<p>"아주 훌륭합니다. 전투력 자체는 현재 백호 길드의 정예 공격대 멤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."</p>  
<p>"그래요?"</p>  
<p>백윤호는 겨우 미소를 되찾았다.</p>  
<p>김철은 A급.</p>  
<p>상급 헌터들 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재목.</p>  
<p>이번 공격대의 리더인 그가 B급 헌터들을 잘 통솔해서 던전을 클리어할 수만 있다면!</p>  
<p>C급 헌터들의 피해야 좀 있겠지만 백호 길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상급 헌터들의 생환이 중요했다.</p>  
<p>'다행히 김철 헌터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니...'</p>  
<p>사그라졌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.</p>  
<p>사장을 안심시킨 주성찬은 옆의 안상민을 흘겨보았다.</p>  
<p>"방금 듣자 하니 뭐, 재각성 가능성을 보이는 E급 헌터?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..."</p>  
<p>주성찬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콧방귀를 꼈다.</p>  
<p>"그따위 근본도 없는 헌터보다는 우리 김철 헌터가 훨씬 더 쓸 만할 겁니다."</p>  
<p>안상민의 표정이 굳어졌다.</p>  
<p>노골적인 무시.</p>  
<p>하지만 굳이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지는 않았다.</p>  
<p>'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...'</p>  
<p>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헌터들이 갇혀 있는 레드 게이트를 올려다보았다.</p>  
<p>우우우-</p>  
<p>레드 게이트의 붉은빛이 오늘따라 더 불길하게 보였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당신, E급 아니죠?"</p>  
<p>여자의 당돌한 질문.</p>  
<p>진우는 말했다.</p>  
<p>"그럼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."</p>  
<p>"얼마든지요."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김철과 그의 주변에 모인 헌터들을 향했다. 출발 전인 그들은 계획을 짜고 있었다.</p>  
<p>"당신들, 신입들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 겁니까?"</p>  
<p>"우리가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'던전 안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'라서요."</p>  
<p>던전 안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.</p>  
<p>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그 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우였다.</p>  
<p>"우리 모두 교육을 받았어요. 특히 저기 있는 김철 저 사람은 아예 특수 교육을 받았죠. 백호 정예 공격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요."</p>  
<p>교육을 받았기에 던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</p>  
<p>진우는 황당했다. 그리고 이들도 한송이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.</p>  
<p>말로는 교육받았다, 어쩐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?</p>  
<p>던전의 무서움을 하나도 모르고 우쭐대는 것이다.</p>  
<p>'아는 것과 겪은 것은 전혀 다르다.'</p>  
<p>특히 던전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순간, 구멍 뚫린 둑이 터지며 물이 쏟아져 들어오듯 와르르 무너지리라.</p>  
<p>쌓은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.</p>  
<p>어쩐지 김철 팀의 앞날이 보이는 듯했다.</p>  
<p>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들 역시 어쩔 수 없는 초짜들이었다.</p>  
<p>"아직 대답 안 하셨어요."</p>  
<p>"네?"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다시 이상한 여자에게로 옮겨 갔다.</p>  
<p>"제 질문의 대답요."</p>  
<p>E급이 맞냐 아니냐는 질문.</p>  
<p>생각보다 집요한 여자였다.</p>  
<p>"그걸 왜 말해 줘야 합니까?"</p>  
<p>퉁명스러운 말이 나왔지만 여자, 박희진은 속으로 주먹을 움켜쥐며 쾌재를 불렀다.</p>  
<p>나름 많은 사람을 만나 본 박희진은 저 반응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.</p>  
<p>그건 자신감이었다.</p>  
<p>'역시 내가 본 게 맞았어!'</p>  
<p>거기다 확신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.</p>  
<p>백호 길드에서 교육받았을 때 상급 헌터들의 움직임을 꽤 봤다.</p>  
<p>하지만 아까 진우의 손.</p>  
<p>화살을 잡을 때의 손처럼 빠른 동작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다.</p>  
<p>'내 눈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신히 확인만 가능했을 정도였어.'</p>  
<p>운동선수 출신에 전투계열로 각성해서 동체시력에는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도 말이다.</p>  
<p>박희진은 눈을 반짝였다.</p>  
<p>'이 남자는 적어도 A급 이상.'</p>  
<p>아니, 어쩌면...</p>  
<p>박희진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시 물었다.</p>  
<p>"그러지 말고 말해 주시면 안 돼요?"</p>  
<p>"일 없습니다."</p>  
<p>잡담은 여기까지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괜히 이리저리 문답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고, 무엇보다 김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김철과 진우의 시선이 마주쳤다.</p>  
<p>"우리는."</p>  
<p>김철의 목소리는 너무 굵고 낮아서 실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매우 위협적으로 들렸다.</p>  
<p>"길 쪽으로 간다."</p>  
<p>단순히 자기네들의 이동 경로를 보고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.</p>  
<p>김철의 눈이 너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고 있었다. 우리를 따라 오지 말라는 숨겨진 뜻과 함께.</p>  
<p>'...'</p>  
<p>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김철에게 시선을 주었다.</p>  
<p>"우리는 숲 쪽으로 간다."</p>  
<p>"...행운을 빌지."</p>  
<p>진짜 행운이 필요한 쪽은 너희들 같지만.</p>  
<p>진우는 말을 아꼈다.</p>  
<p>"너희도."</p>  
<p>진우 팀은 숲 쪽으로 이동했다.</p>  
<p>그들의 모습이 수풀 속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김철은 참았던 웃음을 터트렸다.</p>  
<p>"멍청이들."</p>  
<p>"네?"</p>  
<p>"저길 봐."</p>  
<p>김철은 팔짱 끼고 있던 손을 풀어 숲의 나무들을 가리켰다.</p>  
<p>한두 군데가 아니다.</p>  
<p>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거대한 짐승이 할퀴어서 만든 것 같은 자국이 있었다.</p>  
<p>"저... 저건!"</p>  
<p>"곰이다."</p>  
<p>"아이스 베어(Ice bear)!"</p>  
<p>맹수형 마수들 중에서도 특히나 위험하다는 곰과의 마수들!</p>  
<p>놈들의 영역표시였다.</p>  
<p>김철 팀의 헌터들이 그걸 보고서 혀끝을 찼다.</p>  
<p>"쯧쯧."</p>  
<p>"차라리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될 것을."</p>  
<p>"앞장서서 나선 E급 하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 다 죽게 생겼군."</p>  
<p>"E급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았겠습니까?"</p>  
<p>김철은 숲을 향해 조소를 날렸다.</p>  
<p>'그럼 그렇지. E급 따위가.'</p>  
<p>...가만.</p>  
<p>갑자기 김철의 미소가 사라졌다.</p>  
<p>'저쪽 팀에는 C급이 대부분이고, 심지어 B급까지 있었는데...'</p>  
<p>그런데 어째서 자신은 진우를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?</p>  
<p>지금 막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전혀 위화감이 없었다.</p>  
<p>김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...뭐 어때.'</p>  
<p>곧 죽을 놈인데.</p>  
<p>얼마 버티지도 못할 약자들 일보단 자신들의 일을 생각하는 게 더 급했다.</p>  
<p>죽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닌가?</p>  
<p>김철이 길 쪽으로 돌아서며 목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"출발."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가 앞장서 걸었다.</p>  
<p>그런데 얼마 못 가 박희진이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.</p>  
<p>"뭡니까?"</p>  
<p>"당신 미쳤어요?"</p>  
<p>진우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팔짱을 꼈다.</p>  
<p>다음 단어는 신중히 고르라는 경고였다.</p>  
<p>진우의 의도가 전해졌는지 박희진은 목소리를 낮췄다.</p>  
<p>"미안해요.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."</p>  
<p>박희진의 손끝이 주변의 나무 하나를 가리켰다.</p>  
<p>"저거 보여요?"</p>  
<p>나무에 남은 거대한 손톱자국.</p>  
<p>"저기도! 또 저기도!"</p>  
<p>멀쩡한 나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주변의 나무들은 죄다 껍질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.</p>  
<p>"온통 곰의 영역표시로 도배되어 있잖아요! 이 숲 전체가 곰 마수의 서식지란 말이에요!"</p>  
<p>개나 원숭이는 호랑이나 사자보다 약하다.</p>  
<p>마수도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개나 원숭이 형태의 마수보다 호랑이나 사자 형태의 마수가 훨씬 더 상대하기 까다로웠다.</p>  
<p>그렇다면 곰은?</p>  
<p>곰, 그중에서도 백곰은 최강의 육식동물로 손꼽히는 종이었다.</p>  
<p>지금 진우 팀은 그런 끔찍한 맹수를 기반으로 한 마수들이 사는 장소에 발을 들인 것이다.</p>  
<p>박희진이 열을 낼 만했다.</p>  
<p>"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야 돼요! 마수들이 몰려오기 전에!"</p>  
<p>쯧쯧.</p>  
<p>진우가 혀를 찼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박희진은 진우가 화를 내거나, 놀라거나,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셋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했다.</p>  
<p>그런데 예상이 빗나갔다.</p>  
<p>섣부른 선택에 일침을 놓은 건 분명히 자신인데, 오히려 진우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이쪽을 봤다.</p>  
<p>'왜, 왜 저런 눈으로 보는 거야?'</p>  
<p>박희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.</p>  
<p>"뭐, 뭐죠?"</p>  
<p>목소리가 다시금 올라갔다.</p>  
<p>진우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영역표시가 없는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드니, 아이스 베어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겠죠?"</p>  
<p>"그,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..."</p>  
<p>"그래서 숲으로 이동하는 겁니다."</p>  
<p>"네?"</p>  
<p>박희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'이렇게 해 줘도 못 알아듣나.'</p>  
<p>어쩔 수 없이 진우는 본론을 얘기했다.</p>  
<p>"숲에 있는 동안은 아이스 베어만 걱정하면 되니까."</p>  
<p>"아!"</p>  
<p>그제야 박희진은 진우가 하려는 말을 깨달았다.</p>  
<p>아이스 베어의 개체가 많다는 말은 아이스 베어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수가 없다는 소리.</p>  
<p>더 강한 마수의 등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.</p>  
<p>'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...'</p>  
<p>박희진은 진우 앞에서 큰소리친 게 몸서리치게 부끄러웠다.</p>  
<p>목덜미까지 붉어진 그녀는 아래로 떨군 얼굴을 들지 못했다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혀를 찼다.</p>  
<p>던전이 무서운 이유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데 있다.</p>  
<p>적을 모르면 대처도 못하니까.</p>  
<p>그런데 이곳의 적은 훤히 드러나 있지 않은가?</p>  
<p>'곰의 형태를 한 마수.'</p>  
<p>아이스 베어가 얼마나 강한지는 몰라도 방금 전의 그 엘프 두 놈보다 약한 건 확실했다.</p>  
<p>놈들은 곰 가죽으로 된 옷을 걸치고 있었다.</p>  
<p>그래서 숲을 택했다.</p>  
<p>숲에서 레벨업을 하는 동시에 김철 팀과 백귀들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노릴 생각이었다.</p>  
<p>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문득 진우가 의아하다는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"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?"</p>  
<p>박희진의 얼굴이 너무 빨갰다.</p>  
<p>박희진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추... 추워서 그래요."</p>  
<p>"후-"</p>  
<p>깊게 한숨을 내쉰 진우가 상점을 불러내어 구매 가능 목록을 뒤지다가 두터운 털옷과 겨울용 신발을 골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템: 따뜻한 털옷]</p>  
<p>입수 난이도: 없음</p>  
<p>종류: 잡동사니</p>  
<p>입으면 몹시 따뜻하다.</p>  
<p>-가격: 10골드</p>  
<p>[아이템: 따뜻한 장갑]</p>  
<p>입수 난이도: 없음</p>  
<p>종류: 잡동사니</p>  
<p>신으면 몹시 따뜻하다.</p>  
<p>-가격: 10골드</p>  
<p>'털옷과 신발이 각각 10골드씩.'</p>  
<p>옵션이 들어간 아이템과 다르게 옵션이 없는 일반용품은 그다지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.</p>  
<p>아니, 가지고 있는 골드에 비하면 아주 쌌다.</p>  
<p>[보유한 금액: 431,930골드]</p>  
<p>'그래도 잡동사니를 돈 주고 사게 되다니...'</p>  
<p>진우는 구매를 선택했다.</p>  
<p>누구는 주고,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 진우는 100골드를 써서 다섯 사람 몫을 전부 샀다.</p>  
<p>스르르-</p>  
<p>발 아래 다섯 벌의 옷과 다섯 켤레의 신발이 나타났다.</p>  
<p>당연히 진우를 제외한 네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"뭐, 뭐야? 아공간 마법?"</p>  
<p>박희진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올렸다.</p>  
<p>다른 사람이 놀라든 말든 간에 진우는 담담히 말했다.</p>  
<p>"하나씩 골라 입어요."</p>  
<p>그렇게 말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털옷을 집으려는 순간, 근처에 있던 한송이가 갑작스럽게 소매를 덥석 잡았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진우와 시선이 마주친 한송이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.</p>  
<p>"아, 아저씨 뭐예요? 아까 화살 잡아챈 것도 그렇고, 이상한 마법으로 옷도 막 꺼내고."</p>  
<p>진우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.</p>  
<p>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질문들이 쏟아지고 그만큼 귀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다.</p>  
<p>'그래, 이 기회에 확실히 말해 두자.'</p>  
<p>진우는 단호히 말했다.</p>  
<p>"너는 내가 데려왔으니 내가 책임지고 지켜 준다. 대신."</p>  
<p>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.</p>  
<p>"아무것도 묻지 마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들어 박희진을 비롯한 다른 헌터들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여러분도 마찬가집니다.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고,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."</p>  
<p>그리고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. 붙잡지 않을 거니까."</p>  
<p>진우가 아니라 B급 헌터인 박희진을 보고 따라왔던 남자 헌터 두 사람은 자신이 입으려던 털옷과 진우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